

새사연 보고서

요약문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2)

2014.04.17. |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1. 청년의 눈으로 본 청년고용문제 : 꿈을 찾아 가는 길

가. 꿈을 향해서 : 네 갈래 길찾기

나. 청년들의 꿈, 방향, 좌절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 정책 대상인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상을 찾고자 청년 14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인터뷰 결과를 심상지도분석(mental mapping)을 활용하여 인터뷰 대상자가 '좋은 일자리'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관련 개념들을 수형개념도(tree diagram)로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각 사례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좋은 일자리' 상을 도출해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크게 네 갈래의 길을 걷고 있었다. 먼저, 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기를 거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꿈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대기업에 취직한 '남들이 부러울 만한 좋은 길' 을 가는 이들도 있다. 둘째, 원하는 직장에 일자리가 나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반복하거나, 문화 분야 일을 좋아하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워 다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꿈을 미루고 다른 직장 다녀보기' 의 경우도 있다. 셋째, 원하는 일을 하려고 대학원 공부를 하지만 휴학을 반복하며 학비를 벌어야 하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는 '꿈을 좇아 계속 가는 길' 을 택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여러 한계들을 느끼고 직접 창업에 뛰어들 '내 일자리 스스로 만들기' 의 길 위에 있는 이들도 있다.

이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①장래 희망을 만드는 시기, ②취·창업준비를 하거나 미션을 못 찾고 방향(비경활)하는 시기, ③취직에 성공, ④창업에 도전, ⑤직장이 자신에 이상과 맞지 않아서 불행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⑥사업에 실패, ⑦자기 직업에 행복, ⑧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지속가능한 상황 등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⑦, ⑧은 청년 및 고용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①~⑥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공공의 지원은 ④의 촉진을 위한 인큐베이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처절한 실패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⑤, ⑥의 경우에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①의 단계부터 청년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이 연구보고서는 제안한다.

청년들이 원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의 상은 '여유로운', '자긍심과 자존감을 주는',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 '재미있고 소망하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관계 또는 교류를 맺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기계발의 기회가 있는' 일자리 등이며, 더 구체적인 내용도 수형개념도 안에 담겨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고용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년들은 기술교육원, 청년사회적기업육성사업, 소상공인창업융자, 창업1000,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청년허브, 뉴딜일자리 등에서 느낀 좋았던 점과 한계들도 짚어줘 시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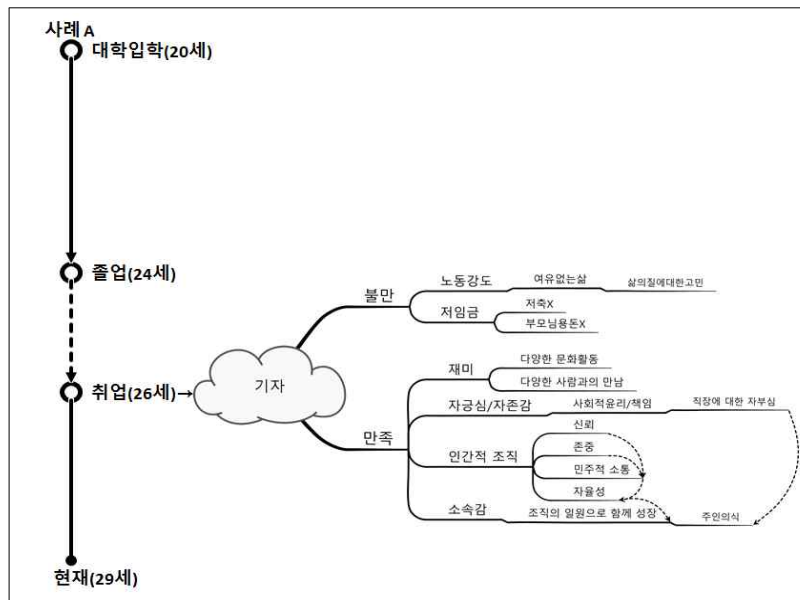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 보고서를 3회에 걸쳐 새사연 사이트에 게재할 계획이다.

1. 청년의 눈으로 본 청년고용문제 : 꿈을 찾아 가는 길

가. 꿈을 향해서 : 네 갈래 길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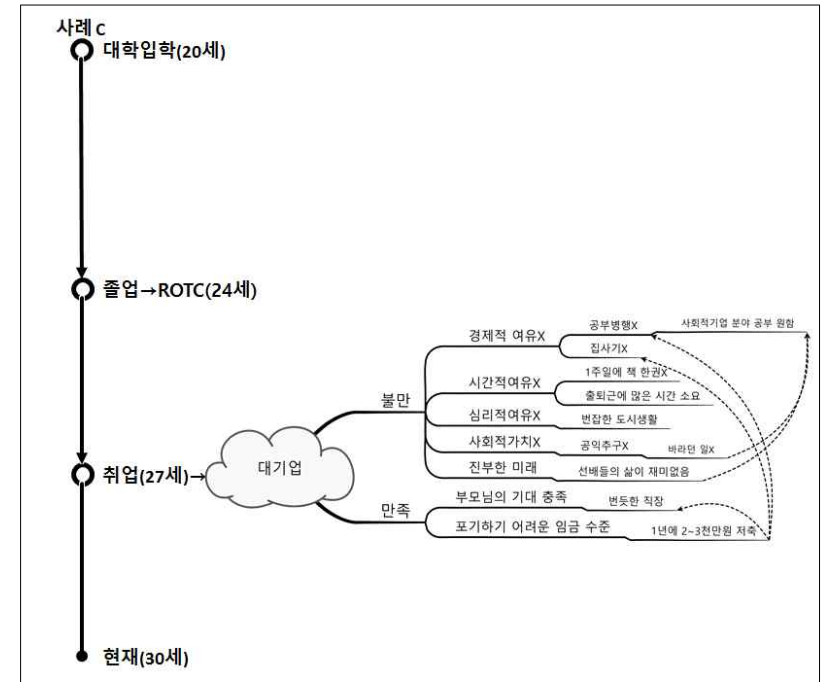
□ 부러울 만한 좋은 길? (Career Type 1)

- 1) 사례 A : 졸업과 동시에 일정 기간의 취업준비를 거쳐 기자로 취직
 - 현재 직업에 만족 : 재미있고,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며, 인간적 조직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음
 - 불만스런 점 : 생각했던 것보다 저임금이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일에 쏟느라 삶의 여유를 느끼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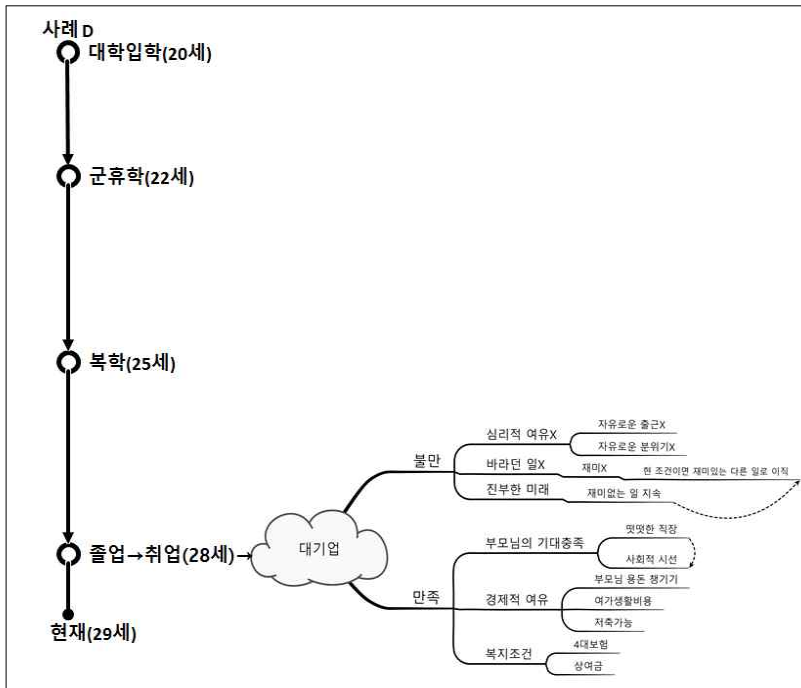
[그림 1] Career Type 1-1 : 사례 A

- 2) 사례 C : ROTC를 지원하여 군복무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
 - 만족스런 점 : 대기업에 취업하여 부모님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
 - 불만스런 점 : 원래 원하던 일(사회적 가치를 지닌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집을 사거나 대학원 진학을 병행할 정도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님, 1주일에 책 한 권 읽을 시간을 내기도 어려움



[그림 2] Career Type 1-2 : 사례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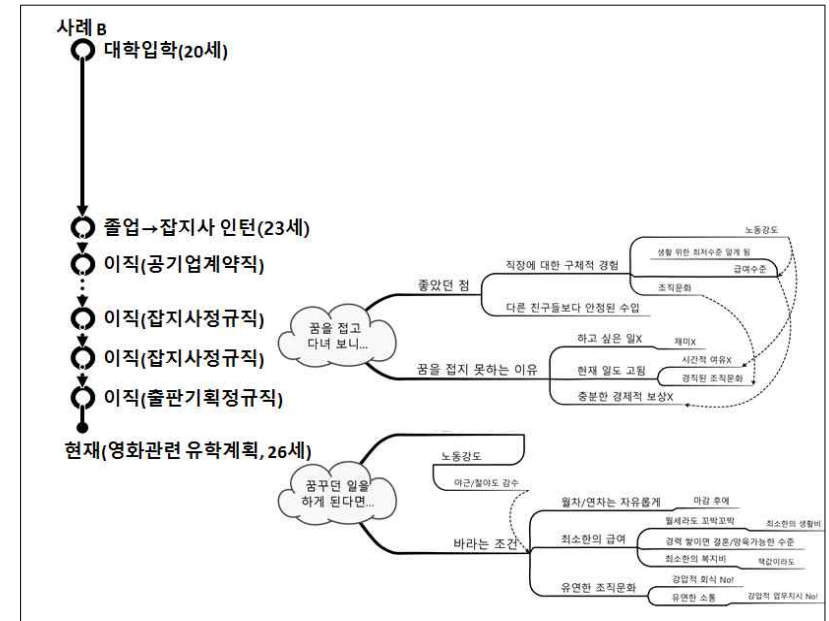
- 3) 사례 D : 대학 기간에 군복무를 해결하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
- 만족스런 점 : 높은 급여 수준, 멋진 직장에 다닌다는 부모님의 만족감, 비교적 좋은 복지수준
 - 불만스런 점 : 원래 원하던 일(방송PD 또는 콘텐츠 제작)과 전혀 다른 일여서 재미가 없으며, 출근 시간이 너무 이르고, 조직문화가 딱딱한 편임. 앞으로도 지급과 같은 유형의 업무가 지속될 것이라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직을 고민할 것 같음



[그림 3] Career Type 1-3 : 사례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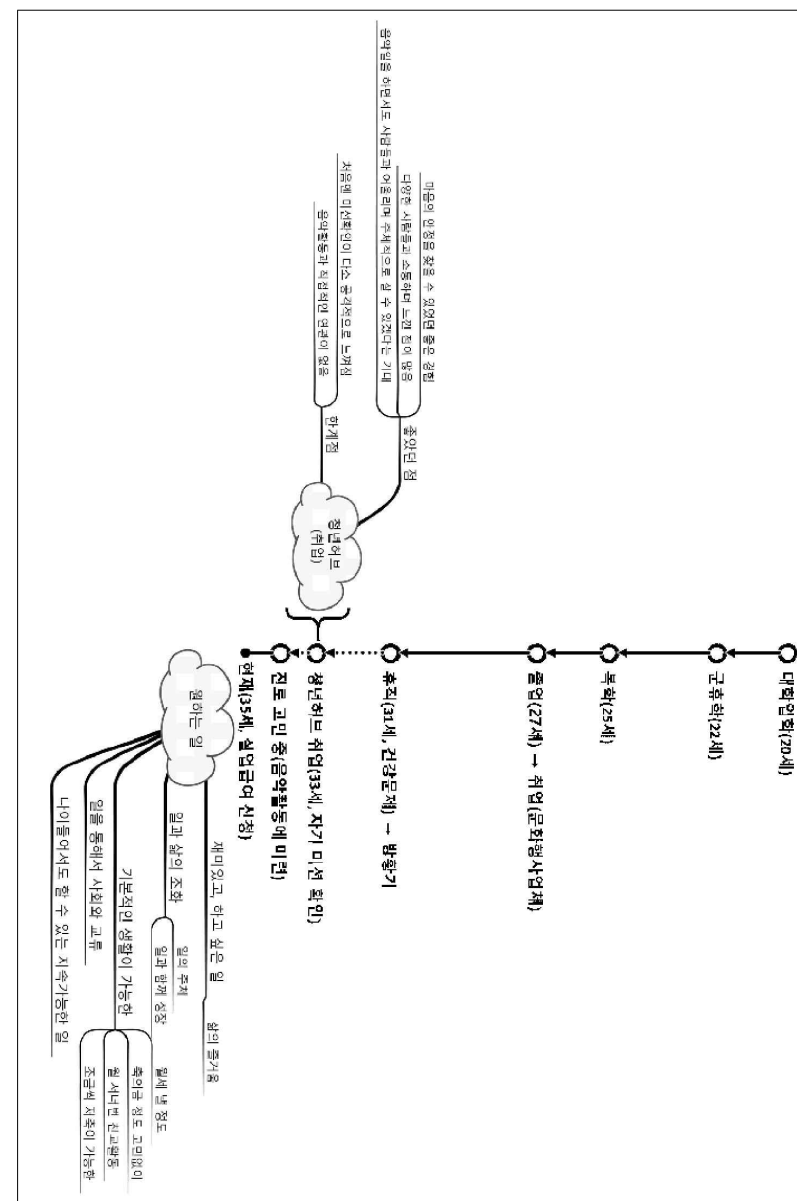
□ 꿈을 미루고 다른 직장 다녀보기 (Career Type 2)

- 1) 사례 B : 원하는 직장(영화전문잡지)에 일자리가 나지 않아서 그나마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직장으로 이직을 반복
- 꿈을 미루고 얻은 경험 : 생활이 가능한 급여수준, 노동강도, 조직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과보다 안정된 수입을 얻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음
 - 꿈꾸던 일을 하게 된다면 : 야근과 철야도 기꺼이 할 수 있지만, 대신에 마감 후 월차·연차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급여가 주어지고, 유연한 조직문화였으면 좋겠음



[그림 4] Career Type 2-1 : 사례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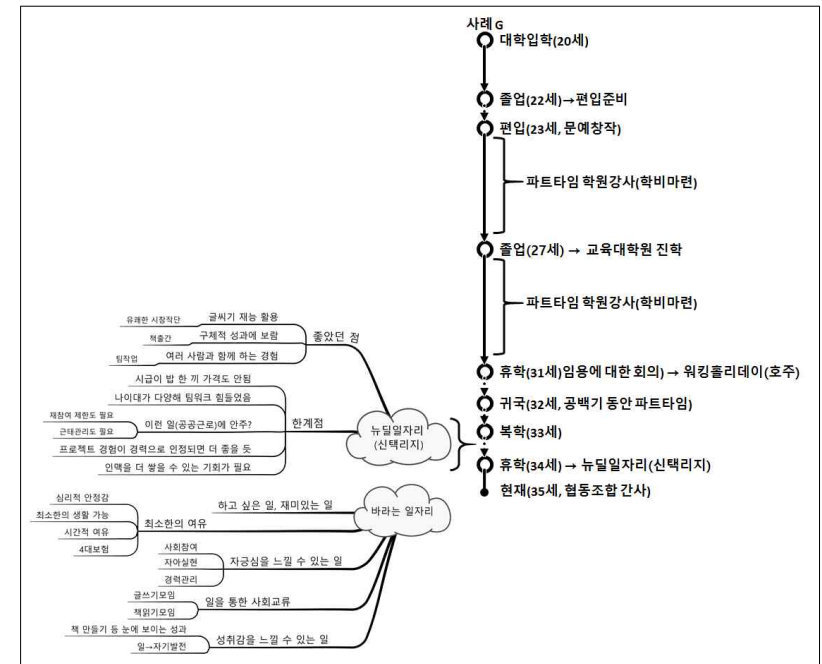
- 2) 사례 I : 음악활동을 하고 싶지만 관련 일자리로 생계 꾸리기 어려워 고민
- 오래전부터 음악활동에 대한 꿈이 있었으며, 관련 일을 하고자 대학을 졸업하고 문화회사업체에 취업하였음. 하지만 급여가 불규칙적이고,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 청년허브 : 청년허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떨칠 수 있었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으며, 음악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 아쉬운 점은 미션 확인 과정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며, 음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었음
 - 원하는 일 :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일의 주체로서 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과 삶의 조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 일을 통해서 사회와 교류하기.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



[그림 5] Career Type 2-2 : 사례 I

□ 꿈을 좇아 계속 가면? (Career Typ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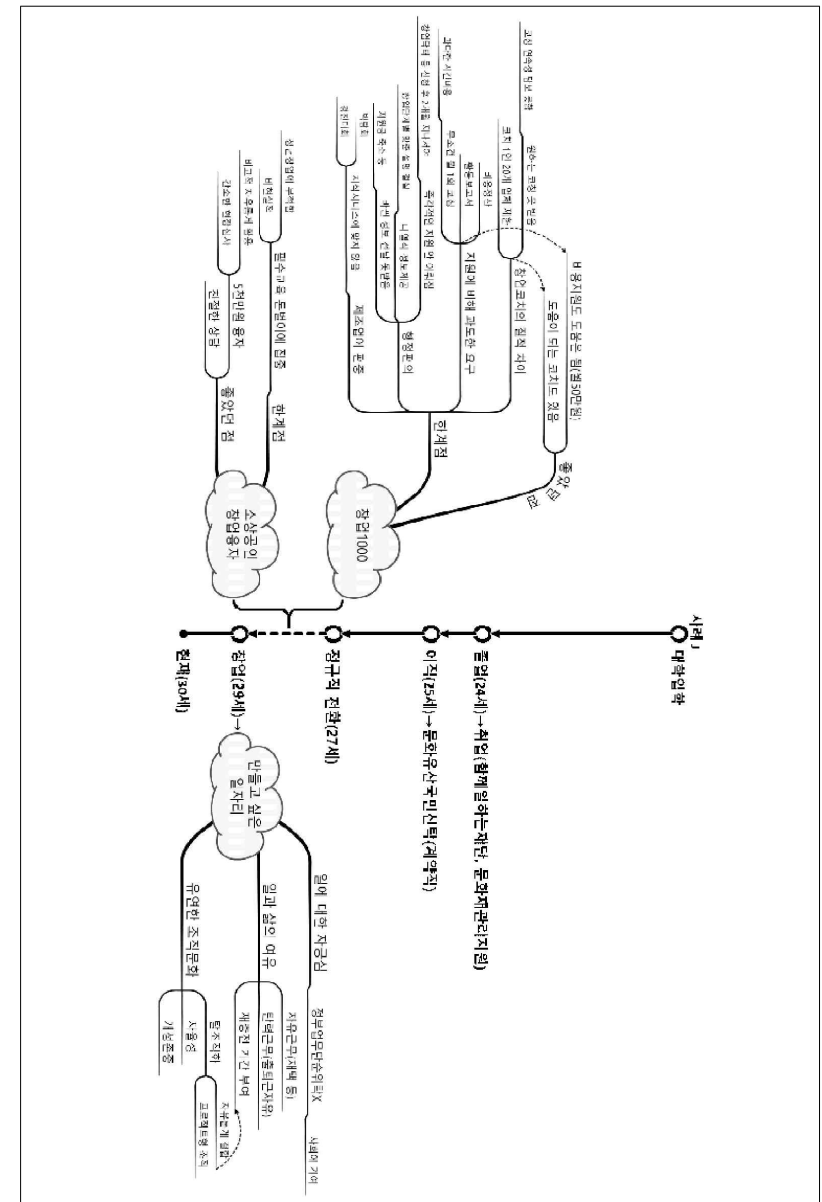
- 원하는 일(문학가)을 하기 위해 대학 때부터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쉽게 꿈을 이루기 어려움(사례 G)
- 지금까지 걸여온 길 : ①전문대 입학(20세), 문학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음. ②졸업과 동시에 4년제 대학으로 편입준비(22세). ③문예창작과 편입(23세). ④야간에 파트타임 학원강사로 학비를 벌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23~27세). 문학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 글쓰기를 병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어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됨. ⑤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27세). ⑥다시 학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파트타임 학원 강사를 하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됨(27~31세). ⑦다니던 학교의 교육대학원 출신이 임용에 합격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 30세가 넘어서면서 교사임용에 대한 회의감으로 휴학을 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지원(31세). ⑧귀국 후 파트타임을 전전하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다시 복학(33세). ⑨다시 대학원 휴학하고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지원(34세). ⑩현재 협동조합 간사로 일하면서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뉴딜일자리 : 글쓰기 재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공동이 노력한 책이 출간 되었을 때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음. 계속 혼자였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도 값진 경험이었음. 아쉬운 점은 시급이 밥 한 끼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직은 프로젝트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맥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음. 간혹 이런 성격의 공공근로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고, 나이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이 좀 벅할 때도 있었음.
- 바라는 일자리 :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 심리적 안정감과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의 여유. 사회참여, 자아실현, 경력관리가 가능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 일을 통한 사회교류. 일을 하면서 자기발전이 가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림 6] Career Type 3 : 사례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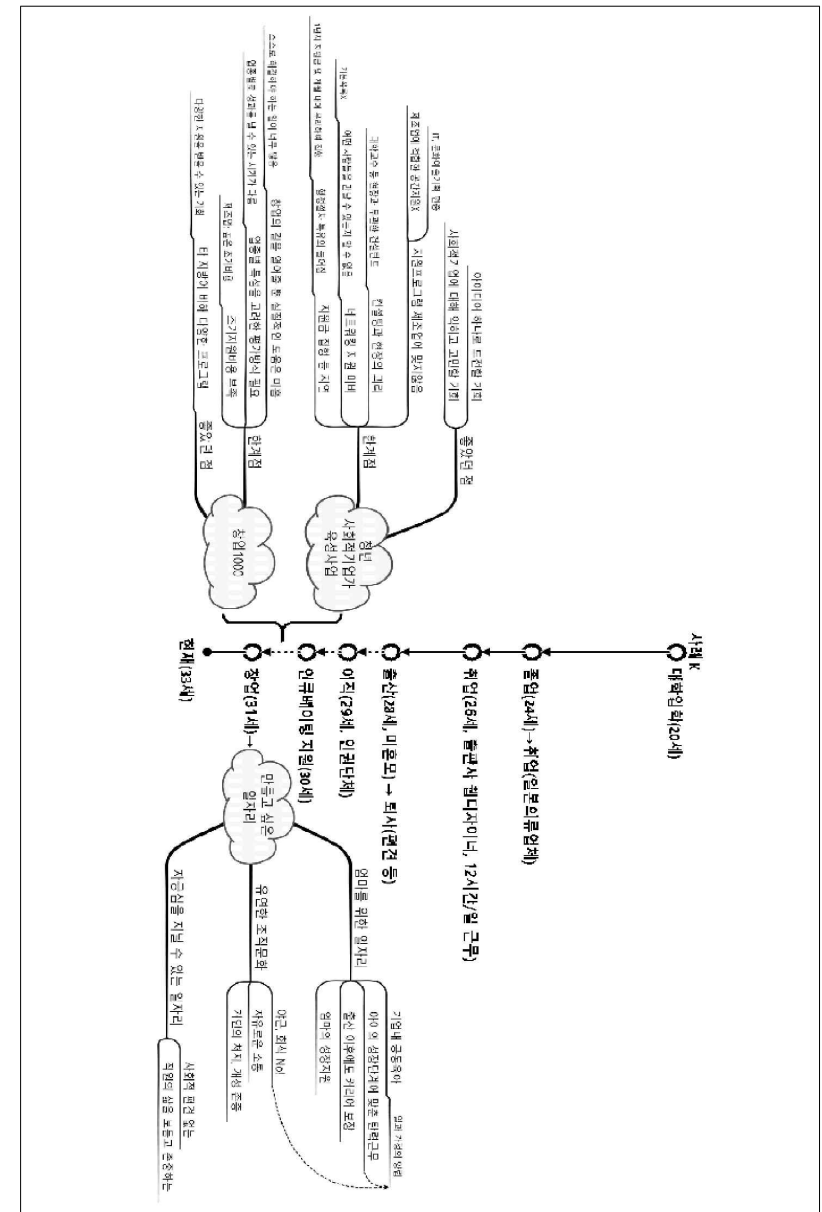
□ 내 일자리 스스로 만들기 (Career Type 4)

- 1) 사례 J : 문화재관련 민간위탁단체에서 한계를 느껴 창업
 -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공공업무를 위탁받는 민간단체가 단순히 정부의 일을 대행하거나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를 느끼고 실질적인 문화재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의 창업을 결심, 창업1000, 소상공인창업융자 등 2개 프로그램 지원 받음
 - 창업1000 : 지원프로그램이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 있으며, 행정편의로 느껴질 정도로 정보전달이 친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쉬움. 지원(월 50만원)에 비해 정산서류나 활동보고서, 월 1회 코칭 의무화 등 요구사항이 과도하게 느껴지며, 창업코치에 따라 코칭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선호하는 코치를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함. 그래도 50만원이라도 지원 받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며, 도움이 되는 코치들도 분명히 존재함
 - 소상공인창업융자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주로 40~50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돈벌이에 초점을 맞춘 성공담 강좌들이 많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청년 창업자에게는 비현실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라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함. 5천만원까지 용자가 되는데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간소한 심사절차, 친절한 상담 등은 좋았음
 - 만들고 싶은 일자리 :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 일과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일자리, 구성원의 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



[그림 7] Career Type 4-1 : 사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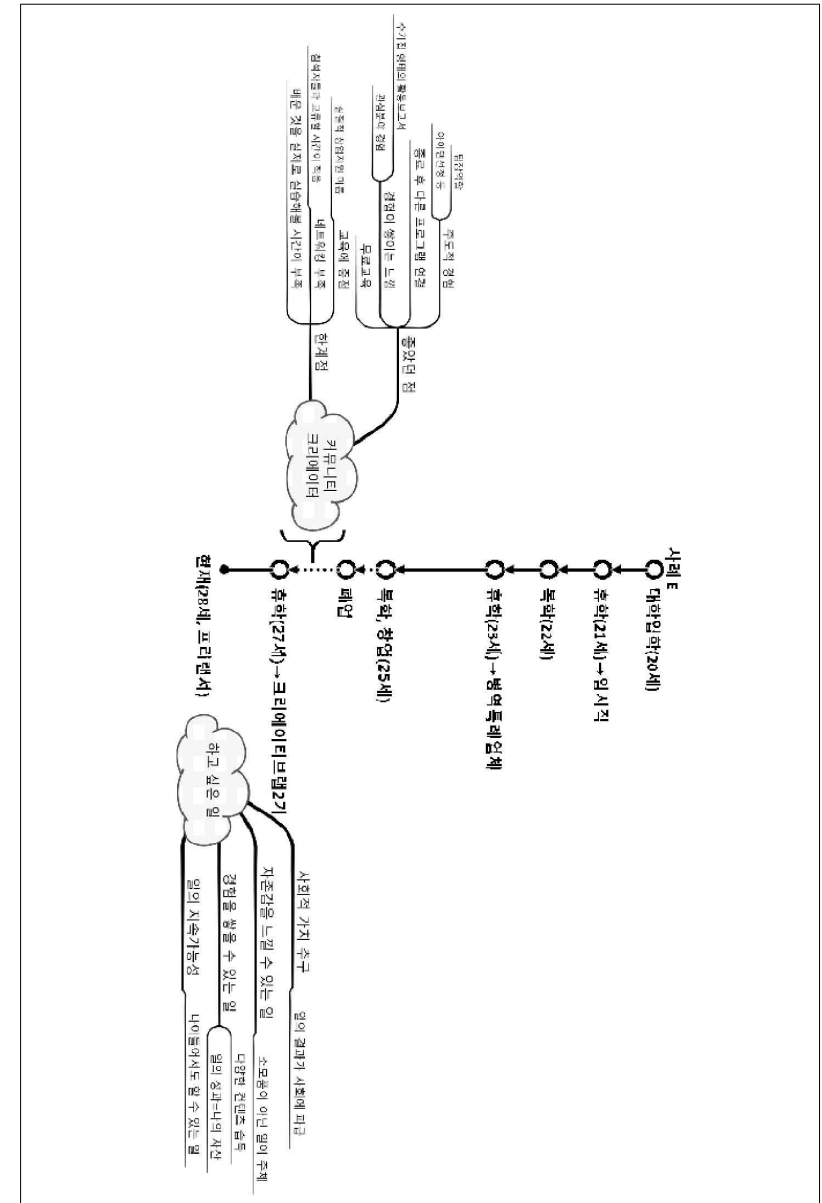
- 2) 사례 K : 엄마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일자리 만들기
- 미혼모라는 이유로 퇴직하게 된 후 사회적 편견이 없고 엄마의 역할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꿈을 갖게 됨.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1000 등 지원
 -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을 꿈꿔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사회적기업에 대해 익히고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원프로그램이 IT 또는 문화예술기회 등에 편중되어 제조업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예를 들어 외식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거나)이 많았으며, 대학교수 등 창업현장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가로 섭외되어 컨설팅 자체의 실효성이 낮았음. 사회적기업의 경우 창업부터 본격적인 사업실적을 내기까지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으며(분야별 인명록도 준비되어 있지 않음), 행정절차 특유의 늘어짐으로 인해 즉각적인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년 치 지원금 수천만을 단 몇 개월에 집행하게 되어 사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도 발생
 - 창업1000 : 서울의 경우 타 지방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편이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부족하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았으며, 다양한 성격의 업종(예를 들어 몇 개월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과 수 십 개월이 지나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일률적인 틀에 맞춰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짐. 초기시설투자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업 창업을 도모하기에는 지원금이 부족함
 - 만들고 싶은 일자리 : 기업과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철학을 지닌 엄마를 위한 일자리, 야근·회식 등이 없는 유연한 조직문화, 사회적 편견이 없는 자긍심을 지닐 수 있는 일자리



[그림 8] Career Type 4-2 : 사례 K

4) 사례 E :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전문 컨설턴트로

- 대학 때부터 다양한 직군의 경험을 쌓았으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컨설턴트로 활동.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과정 참여.
-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과정 : 관심있는 분야를 아이템으로 선정할 수 있었으며, 팀장역할 등을 통해서 주도적 경험을 할 수 있었음. 평소 관심분야를 직접 경험해보고 수기집 형태의 활동보고서를 내면서 경력이 쌓이는 느낌을 받음. 전반적으로 무료교육이라는 것도 좋은 점. 아쉬운 점은 실질적 창업지원은 미흡하고, 참석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한다거나,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였음.
- 하고 싶은 일 : 일의 결과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 일의 소모품이 아니라 주역이어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일.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일의 성과가 나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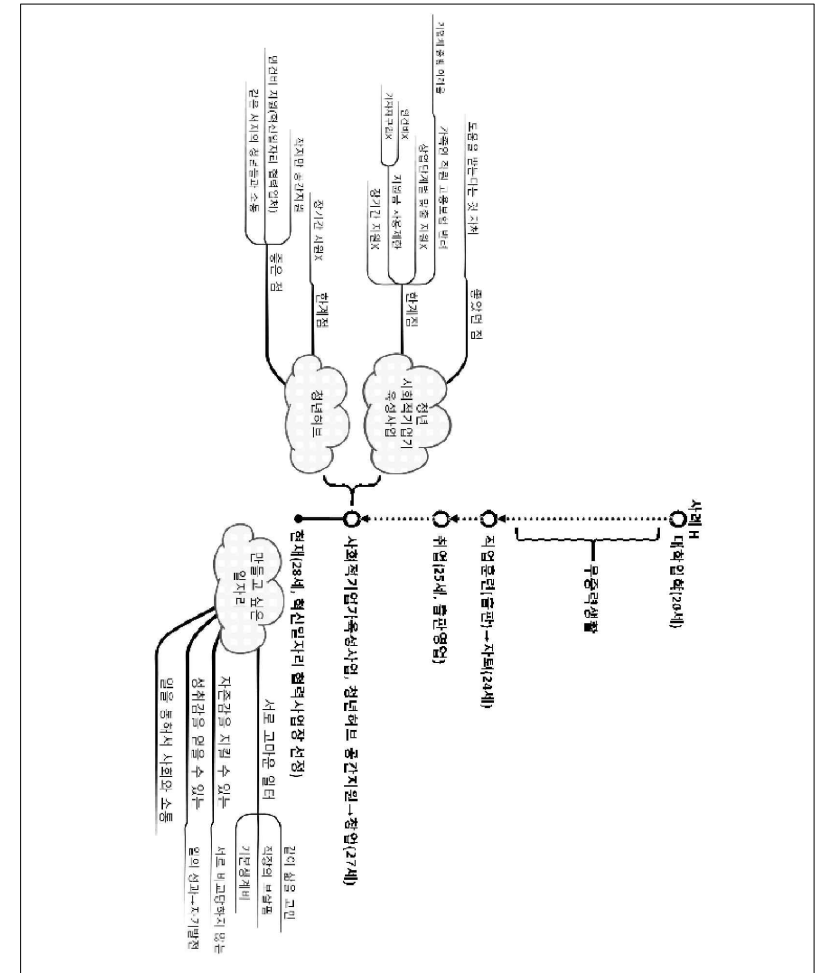


[그림 10] Career Type 4-4 : 사례 E

5) 사례 H : 무중력 상태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창업

- 열등감,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대학시절을 무중력 상태에서 보내다 직업훈련을 받고, 출판사 등에 취업하면서 서서히 사회와의 접점을 넓혀 가다가 사회적기업 교육성, 청년허브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족들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창업
- 청년사회적기업교육성 :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좋았지만, 창업단계별 맞춤 지원이 아쉬웠고, 지원금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 인건비나 기자재구입 용도로 쓸 수 없어서 문제가 많았음. 창업이 안정 궤도로 진입하기에는 지원기간이 짧은 것도 아쉬우며, 가족이 직원이라 고용보험이 계속 반려되어 기업체 증빙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
- 청년허브 : 작지만 공간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같은 처지의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음. 최근에는 혁신일자리 협력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한 시적이거나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만들고 싶은 일자리 : 같이 삶을 고민하고, 각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서로 고민을 일터, 서로 비교당하지 않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일터, 일의 성과가 자기발전으로 이어지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터, 일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일터

[그림 11] Career Type 4-5 : 사례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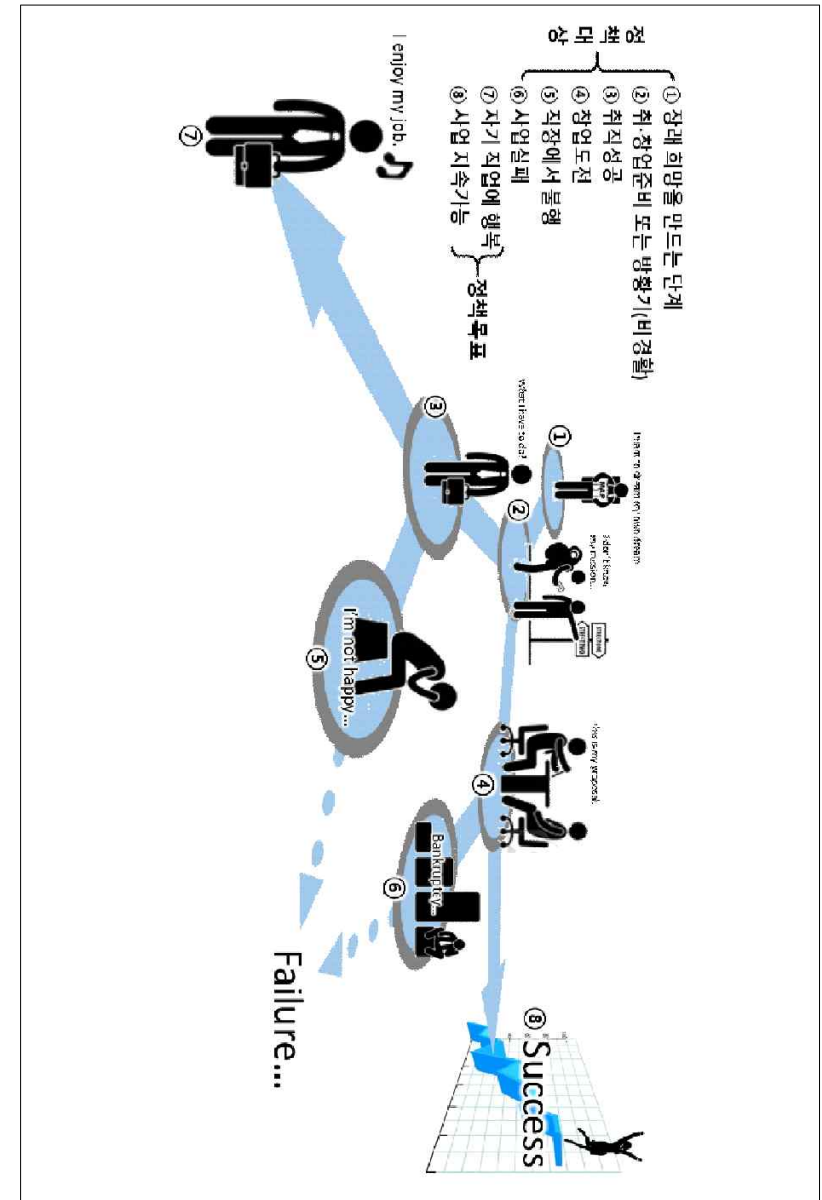


나. 청년들의 꿈, 방향, 좌절

□ 여덟 가지 상황

- 청년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정리하면 ①장래 희망을 만드는 시기, ②취·창업준비를 하거나 미션을 못 찾고 방향(비경활)하는 시기, ③취직에 성공, ④창업에 도전, ⑤직장이 자신에 이상과 맞지 않아서 불행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⑥사업에 실패, ⑦자기 직업에 행복, ⑧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지속가능한 상황 등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⑦, ⑧은 청년 및 고용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으며, ①~⑥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공공의 지원은 ④의 촉진을 위한 인큐베이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 처절한 실패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⑤, ⑥의 경우에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행복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수많은 청년들이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하거나, 실패할 경우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에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유년기부터 처하게 되는 삭막한 경쟁체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던 청년들은 희망을 갖지 못하거나 자기 미션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①의 단계부터 청년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청년허브의 경우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많지만, 지금까지 혼자 자신의 미래와 미션을 고민해 온 청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고 장래목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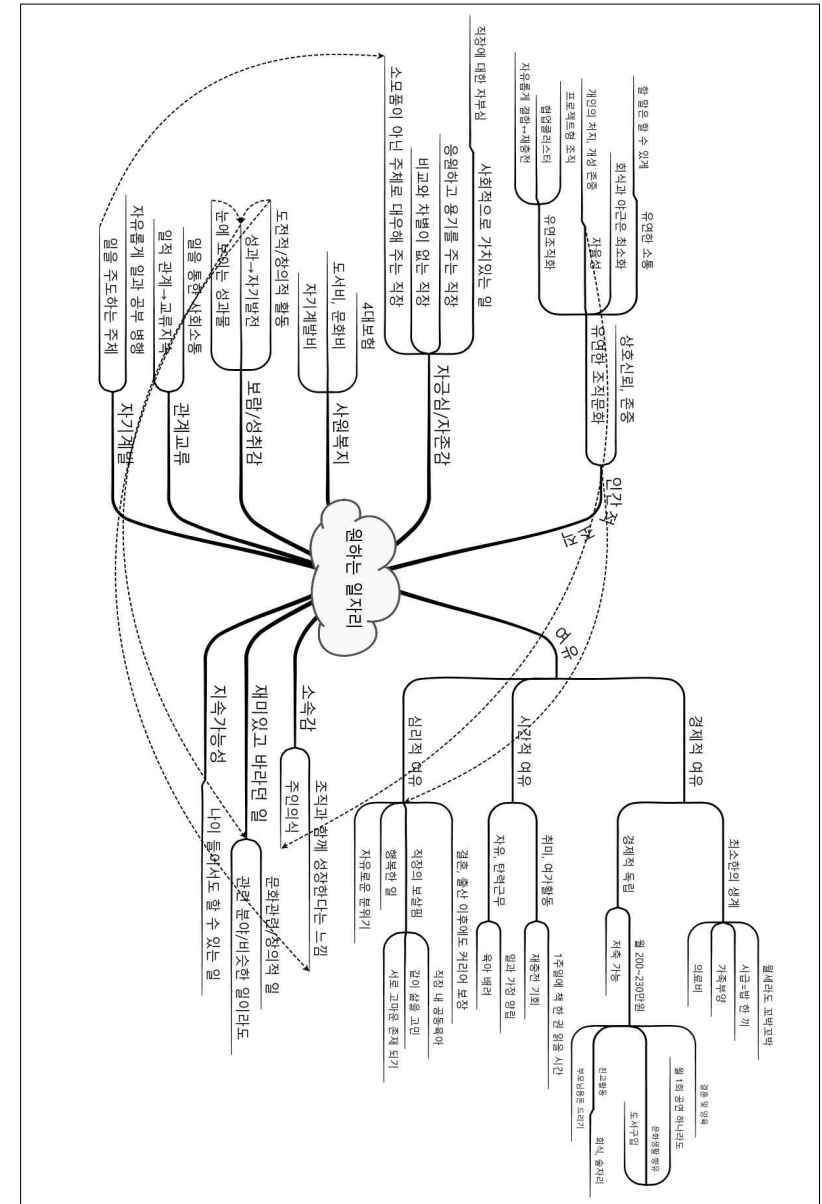
[그림 12] 청년들의 여덟 가지 상황



□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상

- 청년들이 ①~④ 단계에서 원하는 또는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의 상은 여유로운 일자리, 자긍심과 자존감을 주는 일자리, 인간적 조직문화의 일자리, 사원복지를 고려하는 일자리,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 일자리, 재미있고 소망하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회관계 또는 교류를 맺을 수 있는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자기계발의 기회가 있는 일자리 등임
- 여유로운 : 경제적·시간적·심리적으로 최소한의 여유를 보장
- 자긍심과 자존감을 주는 : 사회에 기여하여 자부심을 주고, 직원들을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활동의 주체로 인정
- 인간적 조직문화의 :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지님
- 사원복지를 고려하는 : 4대보험, 도서·문화비, 자기계발비 등 지원
-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 :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만들고, 도전적·창의적이며, 성과가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 재미있고 소망하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 문화관련 또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 사회관계 또는 교류를 맺을 수 있는 : 일적 관계가 지속적인 교류로 발전하고, 일을 통해서 사회소통을 이룰 수 있는
- 지속가능한 :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나이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 자기계발 기회가 있는 : 일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며, 자유롭게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그림 13]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상



□ 청년들이 경험한 지원정책

1) 기술교육원(④번 관련)

- 좋았던 점 : 무료교육, 기숙사제공, 점심제공, 기술습득, 인맥형성기회 등
- 한계점 : 기술만 교육, 행정관행(늘어지는 일정, 창의보다 규격화 등)

2)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④번 관련)

- 좋았던 점 : 아이디어 하나로 도전할 기회, 사회적기업에 대해 익히고 고민할 기회,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 등
- 한계점 : 지원프로그램이 제조업에 맞지 않음, 컨설팅과 현장의 괴리, 네트워킹(인맥형성) 지원 미비, 지원금 집행 등 지연, 창업단계별 맞춤 지원 없음, 지원금 사용제한, 장기간 지원 안됨 등

3) 소상공인창업융자(④번 관련)

- 좋았던 점 :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지원, 친절한 상담 등
- 한계점 : 여러 연령대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하여 돈벌이 위주로 강의를 하는 느낌, 사회적 가치에 중점 두는 청년 창업과 안맞는 듯

4) 창업1000(④번 관련)

- 좋았던 점 : 적지만 비용지원 있음, 도움이 되는 창업코치도 있음, 타 지방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
- 한계점 : 창업코치별 질적 차이 존재, 지원에 비해 의무조건이 까다로움, 행정편의(지원지연, 나열식 정보제공 등), 제조업에 편중, 초기지원비용 부족, 창업의 길을 열어줄 뿐 실질적인 도움은 미흡,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 필요 등


5) 커뮤니티 크리에이터(①, ②번 관련)

- 좋았던 점 : 주도적 경험, 종료 후 연관 프로그램 연결, 경험이 쌓이는 느낌, 무료교육 등
- 한계점 : 교육에 중점을 뒤 실질적 창업지원 미흡, 네트워킹이 이뤄질 시간이 부족, 배운 것을 실제로 실습해 볼 시간이 부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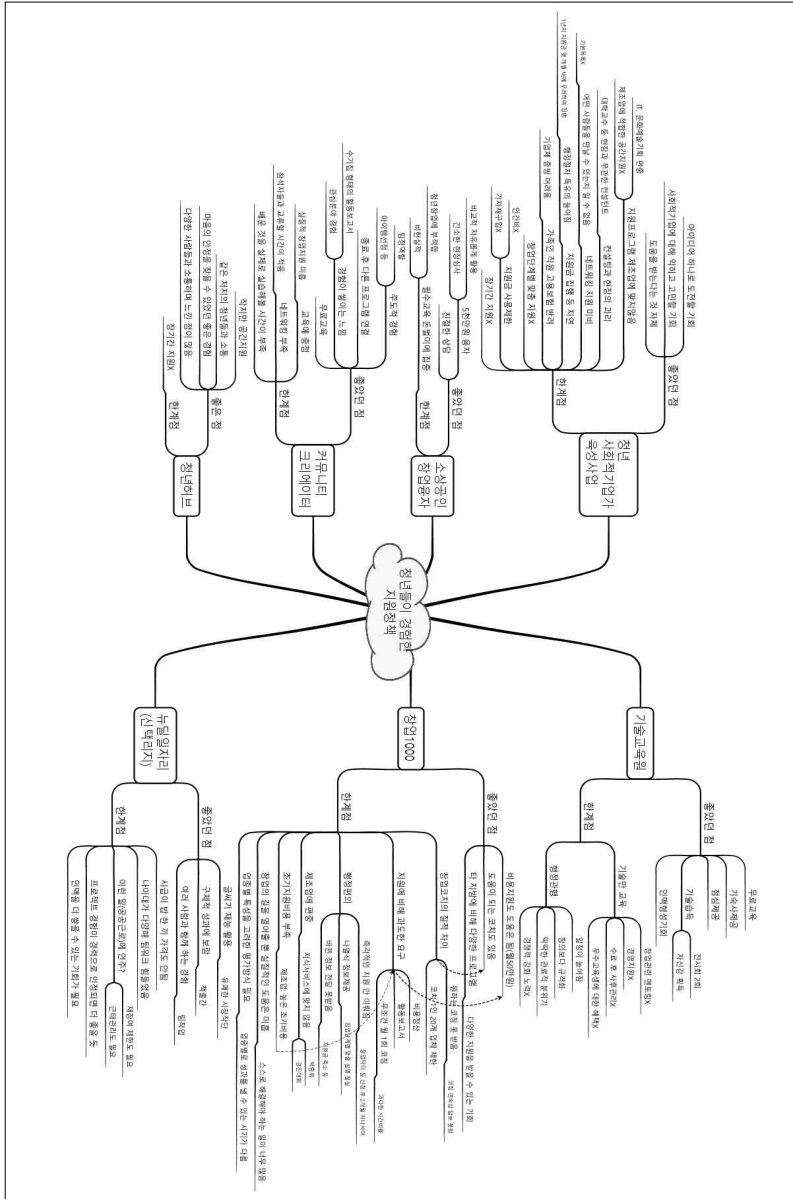
6) 청년허브(①~④번 관련)

- 좋았던 점 : 작지만 공간지원, 같은 처지의 청년들과 소통,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느낀 점이 많음 등
- 한계점 : 장기간 지원이 안됨

7) 뉴딜일자리(①~④번 관련, 선택리지)

- 좋았던 점 : 글쓰기 재능 활용, 구체적 성과에 보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경험 등
- 한계점 : 시급이 밥 한 끼 가격도 안 됨, 나이대가 다양한 경우 팀워크가 어려움, 이런 성격의 공공근로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생김, 뉴딜일자리 프로젝트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되면 좋겠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 

[그림 14] 청년들이 경험한 지원정책



2014년 새사업 발간 보고서

2014년 4월 1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6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